

#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 회 의 록

일 시	2022. 9. 15.(목) 14:00 ~ 16:30
장 소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 홀
참석위원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참석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23년 월정수당 증액 범위 결정 :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li> <li>② 적정 인상률 결정 : 7%</li> <li>③ (여론조사를 위한) 인상률 최대·최소 범위 결정 : 최대 10% ~ 최소 -3%</li> <li>④ 여론조사 방법 결정 : CATI 방식</li> <li>⑤ 2024~2026년 월정수당 증액 범위 결정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증액</li> <li>⑥ 차기 회의 일정 결정 (3차 회의 : 2022. 10. 14. 16:00)</li> </ul>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2차 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22. 9. 15.

작 성 자                      김 근 령  
 위 원 장                      김 창 우

<b>결</b>	담당자	팀 장	담당관
<b>재</b>	김근령		

제 1 차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2022년 9월 15일(목) 14:00~16:30

## 【 심의안건 】

- ① 2023년 월정수당 증액 범위 결정
- ② 적정 인상률 결정
- ③ (여론조사를 위한) 인상률 최대·최소 범위 결정
- ④ 여론조사 방법 결정
- ⑤ 2024~2026년 월정수당 증액 범위 결정
- ⑥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 심의안건 】

- ① 2023년 월정수당 증액 범위 결정 :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
- ② 적정 인상률 결정 : 7%
- ③ (여론조사를 위한) 인상률 최대·최소 범위 결정 : 최대 10% ~ 최소 -3%
- ④ 여론조사 방법 결정 : CATI 방식
- ⑤ 2024~2026년 월정수당 증액 범위 결정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증액
- ⑥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2022. 10. 14. 16:00(3차 회의)

## ■ 위원장

- 저번 주 1차 회의를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2차 회의를 통해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럼 먼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으로 정할 것인지 그보다 더 초과하여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불참하신 두 분은 안계셔서 제가 1차 회의 때 한 말씀은 못 들으셨겠지만 그 이야기를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고 군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군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1차 회의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선택한 5분이 어차피 군민들의 여론이 어차피 이렇게 될거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속내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로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 ○○○○ 위원님, 자기 의견만 피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나름대로 고민 후 말씀하시는건데,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시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 ○○○○ 위원

-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여 죄송합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지금 궁금한게 있는데, 금액을 우리가 설정하는데 그럼 현재 금액보다 깎일 염려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는 건지 깎아야되는 부분도 올려야 되는건가요? 1.4%를 초과해서 인상할 경우에 여론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때 우리가 올리는 안건은 무조건 인상하는 안건인겁니까?



## ■ 간사(정책기획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로 결정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위해 최대, 최소 금액 범위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최대, 최소금액도 위원회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높이자고 할 수도 있고 낮추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의 맹점이라는게 위원회에서 인상을 하자 결정을 해도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받는 금액도 많다 낮추자 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 위원장

- 답변이 되셨는지요?그러면은 일단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할건지 아니면 그보다 초과 인상을 할건지는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해오셔가지고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남해 인구는 감소되고 경제자립도도 남해가 좋지는 않습니다. 또 군의원님들이 수시로 바깥 활동을 하시지만은 공식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96일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저는 지금 받는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처음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만해도 어떤걸 해야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1차 회의를 와서 보니 사안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들에게 제가 의정비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한번 살짝 물어봤는데, 10명 중 8명은 삭감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보고 참 여론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기에 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올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해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 하실 분 있으신가요?

■ ○○○○ 위원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남해군이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에서 가장 최저 금액을 받습니다. 이게 좀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또 월정수당 200몇 만 원으로 모든 책임을 다해서 양심껏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뽑았으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6개 군의 평균이 2,074만 5천 원인데 그 중에서도 남해가 꼴찌입니다. 군부의 평균치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 남해군의 의원들이 꼴찌 급여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비난적인 여론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방치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군의원을 좀 대우해주는 입장에서 수당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채찍을 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 예,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남 18개 시군에서 회의를 하는 기간이 110일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18개 시군에서 아마 가장 많은 회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정 활동을 하는게 회기만 110일입니다. 회기 외에는 군의원들이 사무실을 가지 않을까요?아닙니다. 예산심의나 조례규칙 심의 등을 하기 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행사가 있으면 전부다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1년에 출근하는 날도 200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휴일 다 빼고 자기 휴가 다 빼면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 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거수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투표 결과 : 6명>

○ 그러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투표 결과 : 4명>

## ■ 위원장

○ 초과 인상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정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안을



내놓으실 분 계십니까?

■ ○○○○ 위원

-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수 투표를 하는 것보다 비밀투표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 위원 여러분들 비밀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모두

- 예 비밀투표로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정책기획팀장님 비밀투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정책기획팀장)

- 네 알겠습니다.

<비밀투표 및 개표 후>

■ 위원장

- 투표 결과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증액 4명,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 인상이 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다시 결정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 이 부분에 대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 ○○○○ 위원

- 이 자리에서 무조건 결정을 해야될 것 같으면 또 비밀투표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 위원모두

-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비밀투표를 한 번 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정책기획팀장)

- 네 알겠습니다.

<비밀투표 및 개표 후>

■ 위원장

-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증액 2명, 공무원 보수인상률 보다 초과 인상이 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인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연 2,002만 원입니다. 이 월정수당에서 어느 정도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 생각은 10%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전국 82개 군부의 월정수당 평균 금액이 2,201만 원입니다. 10% 정도를 인상했을 때 2,20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10%를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전국 평균이 2,200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로 가자 전국 평균으로 가자 그 말씀이네요.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 경남 평균치와 경상남도 평균치가 있고 전국 평균치가 있는데,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경남의 군부 평균이 2,140만 9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6개 군의 평균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 평균은 2,074만 5천 원입니다. 남해군의 월정수당과 비교하면 한 7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6개 군의 평균으로 하면 한 4% 정도 인상하면 될 것이고, 경남의 군부 평균으로 하면 7% 정도의 인상을 해야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는게 어떤가 제안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경남(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평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 저는 경상남도의 10개 군부 평균을 내봤는데, 그러면 한 7%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네, ○○○ 위원님은 10%, ○○○ 위원님은 7%, ○○○ 위원님은

4%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 ○○○ 위원

○ 잠시만요. 제가 의견을 4%에서 5%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님 의견은 5%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수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모두

○ 아니요.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먼저 5%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 : 4명>

■ 위원장

○ 다음 7%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 : 4명>

■ 위원장

○ 마지막으로 10%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 : 2명>

■ 위원장

- 그러면 두 개의 안이 동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안으로 또다시 거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모두

- 예.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먼저 5%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 : 3명>

■ 위원장

- 다음 7%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 : 7명>

■ 위원장

- 10명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시 제시할 2023년 남해군의회 월정수당은 현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서 7%를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위원모두

- 이의 없습니다.



## ■ 위원장

- 다음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하여 결정할 경우 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시 제시할 2023년도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의 최대, 최소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정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적정 인상금액은 7%라고 정했고, 지금 정하는 최대 범위는 7%보다는 높아야 되고, 최소 범위는 현재 받는 금액의 이하거나 같아야합니다.
- 위원님들은 최대, 최소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 저는 마음같아서는 최소 범위를 1%로 하고 싶지만 그거는 좀 그런거 같아서 -1%로 의견을 냅니다.

##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적정 인상금액에서는 7%로 결정해놓고, 최소 범위는 -1%로 해놓으면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꼼수를 쓰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인상금액을 7%로 결정을 했으면 최소 범위로 -7%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 ■ ○○○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를 인상 범위로 했으면 최소 범위도 -7%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똑같은 선택지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제 생각은 다른데, 저는 보수라는게 이게 전년도보다 적게 받으면 사실 기분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인상이나 이런 경제지표에 따라 해마다 보수인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저는 한 -3% 정도로 제안합니다.

■ 간사(정책기획팀장)

-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최소 범위 금액은 현재 받는 금액의 이하거나 적어야 됩니다. 이 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저는 이게 원칙이 아니라면 -7%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 서로 의견 나누는 중>

■ 간사(정책기획팀장)

- 살짝 혼란스러우신거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월정수당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 인상비율은 7%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시 질문 문항에는 107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가 됩니다. 107만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받는다, 적정하다, 적게 받는다로 문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7%보다 높은 비율과 현재 받는 금액보다 적은 비율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겁니다.

■ 위원장

-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온 의견은 최소 비율인 -1%, -3%, -7%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아까 말했던 -7% 의견은

접고, -1%, -3%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 **위원모두**

○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 제 생각인데, -1%보다는 -3%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모두**

○ 예, -3%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시 제시할 최소 금액 범위는 -3%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최대 금액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보다는 높아야되니까 10% 정도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 **위원모두**

○ 10%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주민의견수렴 시 제시할 최대 금액 범위는 10%로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ATI 방식과 ARS 방식이 있습니다. CATI 방식이 더 정확도가 높고 오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방법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S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 : 1명>

- CATI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 : 9명>

- 여론조사 방법은 CATI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 **위원모두**

- 예.

■ **위원장**

- 다음은 2024년~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에서 동결할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을 할지, 격년제로 인상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초과하여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하던 그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는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모두**

-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는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예, 그러면 2024년~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모두

○ 예.

■ 위원장

○ 예, 마지막으로 3차 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해야되고 하니 10월 14일 어떠십니까?

<위원들 일정 확인>

■ 위원모두

○ 10월 14일 좋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러면 3차 회의는 10월 14일 금요일 16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모두

○ 네.

■ 위원장

○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